

종합

김항식 총리 취임후 첫 광주·전남 방문

“지역 화합·발전 도움 되겠다”

5·18묘지 참배 ... 4대강 현장 둘러봐

김항식 국무총리가 24일 이틀간의 광주·전남 방문일정을 마무리 짓고 서울로 돌아갔다. 전남 출신인 김 총리로서는 취임 후 첫 고향 방문이다.

김 총리는 방문 첫날인 23일 오후 부인 차승은 여사와 함께 고향인 장성읍을 찾아 성묘를 한 뒤 주민 환영회에 참석해 취임 인사를 나눴다. 김 총리는 “열심히 해서 해방 후 최초 광주·전남 출신 총리로서 다른 어느 누구보다 잘했고, 어려운 국민을 제대로 보살피면서 나라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제게 총리를 맡기기로 결심하고 나서 그동안 광주·전남 출신 총리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며 “당신이(이 대통령이) 광주·전남 출신 총리를 임명한 것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좋아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이 ‘어른 조사를 해보니 영남 지방에서 호남 출신 총리를 시키는 것에 대해 상당한 지지가 나왔다’고 말했다”며 “지역 화합에도 도움이 되고, 광주·전남 시·도민의 기대에 충족시키며 국가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광주로 이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을 비롯 광주·전남 지역 주요 인사들과 만찬을 갖고 지역 현안과 예로 등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김 총리의 누나인 김필식 동산대 총장도 참석했다.

민주당 소속인 강 시장은 환영사에서 “올곧게 성장해 오신 김 총리가 국가 발전과 광주·전남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오늘 아침에 체중을 달아보니(취임 후) 3kg이 빠졌다”며 “큰 책임감과 부담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을 말했다. 이어 “총리직에서 물러날 때 실속있고 내실있는 총리였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저 만큼 40년 가까이 사회 현상에 대해 고민하고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고민한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4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은 김항식 국무총리가 5월 영령들에게 분향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김 총리는 24일에는 국립5·18민주묘지와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을 잇달아 찾아 참배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이 진행 중인 영산강 승촌보 건설 현장을 방문,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세계 최대의 모터스포츠 축제인 포뮬러(F1) 코리아 그랑프리 결승 레이스를 참관, 우승자를 시상한 뒤 서울로 돌아갔다.

/홍행기자redplane@kwangju.co.kr

예견된 교통혼잡 ‘무대책’ 일관

코리아 그랑프리

접근 방향별 주차장 분산배치 안돼 셔틀버스 전용차로 없어 혼란 가중

전남도와 F1 코리아 그랑프리 운영사가 국제 이벤트인 F1을 개최하면서 수 만명에 이르는 방문객을 감안한 교통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티켓 구매자들의 접근 방향에 따라 주차장을 분산배치하지 못했고, 주차장~경기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전용차로 및 승강장 없이 운영하면서 승용차와 뒤섞여 외지 방문객들의 불편이 극에 달했다. 경기장 주변에 1만 300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었으나 출입구는 1곳에 불과해 경기 후 주차장을 나서는데만 1시간 30분 이상이 걸렸다.

24일 전남도와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 주관사인 카보(KAVO) 등에 따르면 23일부터 25일까지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열리는 영암의 F1 경기장까지는 서해안고속도로·목포~영산강하구연·대불산업단지 코스와 광주~나주~보성 등 국도 코

하는 조치는 불가피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없이 F1 경기장에서 5~36km 떨어져 있는 대불대(900대)와 대불산업단지(2100대), 목포 북항(3000대), 대학예정부지(5200대) 등을 주차 장소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주차장에서 경기장을 연결하는 600여 대의 셔틀버스가 전용도로와 승강장 없이 일반 승용차와 함께 경기장 주변 도로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셔틀버스 간격이 늘어지고 불규칙해져 경기장 외 주차장을 이용한 방문객들은 경기 중반이 지난 뒤에야 간신히 입장할 수 있었다. 또 F1 경기장 내 각 관람사에 따라 셔틀버스를 배치하지 못하면서 노약자, 장애인들이 주차장에서 좌석

까지 15분 이상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경기 후에도 경기장 내 주차장에 있던 1만여대의 승용차와 경기장 밖 주차장으로 향하는 셔틀버스가 출입구 1곳에 집중되면서 이 일대가 큰 혼잡을 겪는 등 2010년 F1의 교통 대책은 전반적으로 낙제점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완석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5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특정 시간대에 몰리면 교통 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데도 그에 대한 대비는 전혀 못한 것 같다”며 “사전에 경찰 및 교통전문가 등을 참여시킨 이벤트 대책을 수립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d@kwangju.co.kr



주차장 방블 24일 오전 영암 F1 경기장을 향하는 차량들이 한 대 몰리면서 대불산업단지 일대가 극심한 교통체증을 보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강운태 광주시장 첫 해외 마케팅

전남~제주 국제 요트레이스 폐막

日·美 투자유치 오늘 출국

강운태 광주시장이 민선 5기 들어 첫 해외 마케팅에 나선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제조업과 문화산업 분야의 투자를 유치하고 최근 휴자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3D 디스플레이를 모색하기 위해 일본 도쿄와 미국 LA, 샌안토니오 지역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에는 한국광기술원과 생산기술연구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이 동행해 광주시의 특화산업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 다.

첫 방문지 도쿄에서는 광산업과 금형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환경 설명회를 열고 투자MOU를 맺을 예



정이다. 이어 LA에서는 광산업과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 관계자를 초청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계획 등 광산업 육성방안을 홍보하고 투자와 수주계약 관련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LA에 이어 자매도시인 샌안토니오 시에서는 지난 30여년간의 우호교류를 기념하고 증진하기 위해 건립한 ‘광주의 정자’ 준공식에 참여한 뒤 샌안토니오시와 인적 교류 활성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홍행기자redplane@

2010 전남~제주 국제 요트레이스가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4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전남도와 제주도가 함께 추진해 온 해 처음 열리게 된 이번 레이스는 목포 평화공원 앞 해안에서 순위를 다투는 내항(內港)경기와 목포에서 출발해 진도에 도착하는 외항(外洋)경기 등 2개 분야로 나뉘어 실시됐으며 14개국 50척의 요트, 2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이날 열린 외항 경기는 기상 악화로 목포~제주도 산지항 아닌 목포~진도 코스로 변경돼 진행됐지만, 참가자들은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광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2~23일 열린 내항 경기는 도심 한복판에서 펼쳐져 주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고 주변 영암에서는 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가 열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했다.목포 이외에 함평, 완도, 진도, 해남 등에도 이번 레이스를 추진 중인 전남도는 이번 레이스를 계기로 제주도와 함께 서남해안~제주권을 잇는 마린벨트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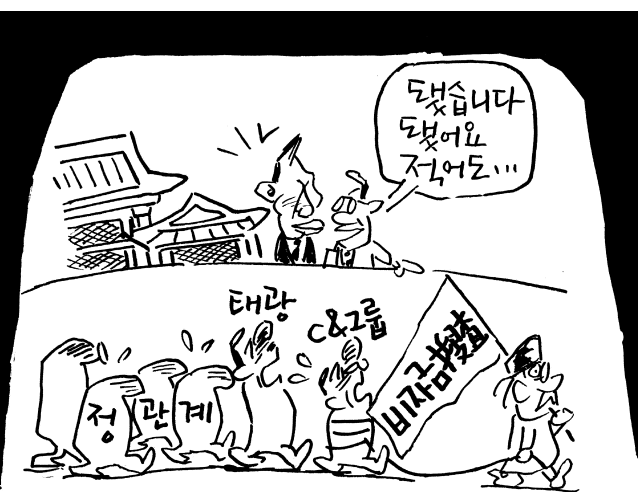
이 대회는 내년에 제주도에서 열리고 그다음 해에는 다시 전남도가 개최하는 교차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제 요트레이스 개최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마린 산업의 중요성과 미래를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며 “앞으로 전남 지역의 마린 관련 산업을 지역 경제를 이끄는 효자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레이더 걱정은 없겠습니다

C&그룹 임병석회장 구속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지난 23일 기업들을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로 은행에서 거액을 빌리고 계열사에 부당 자금거래를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등)로 임병석(49) C&그룹 회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임 회장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2008년 계열사인 C&우방의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해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속여 대구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1000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투자하실분 모십니다

당사는 스포츠 레저용 글러브를 생산유통하는 회사로써 금년도 히트제품인 SR30, SUNGLOVE(특허 등록)의 판매처 증가와 판매성원에 힘입어 즐겁게 수익을 함께 나누실 진실한 투자자를 찾습니다.

투자금액	2억원
투자할분	1~2분
자금용도	제품제조
투자수익률	최소년 35% 확정수익(7,000만원 보장) 1년후 원금 동시상환
기타	전화문의 보다는 방문상담시 추가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제일에스지

문의. 062-610-5454 · 5453 H.P. 010-5681-8084
e-mail : pjmhjom@yahoo.co.kr

손해사정사

大 개강 11월6일(土)

- 보험계약법(土) - PM 2~8시
- 자동차보험이론(日) - PM 2~8시

〈2개월 완성〉

최고 수준의 강의로 여러분의 합격을 책임집니다.

새롬행정고시학원

전대후문, 영진빌딩 5층 ☎ 268-8111~2

결혼과 출산이 행복한 세상만들기

대학생들의 결혼관 의식변화를 위한 남녀대학생교육과 미팅, 문화유적지 답사

“참가자 모집”

“결혼과 출산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의 일환인 결혼지원 사업으로 남녀대학생의 결혼관 의식변화 교육을 통해서 젊은 청춘 남녀가 조기 결혼과 한자녀 더 갖기를 권장 하고 저 출산의 심각성을 홍보하여 국민이 인구 증가율을 높이는 데 이바지 하고 저 아래 일과 같이 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 시 | 2010. 11. 06. 08시 30분
참석인원 | 45명(남녀 대학생) 선착순
집결장소 | 광주역 광장
행 선 지 | 여수-함일암-오동도-순천만
버스투어 | 이벤트 행사 등 참가비 없음

접수처 TEL. 062-572-1980 HP 017-603-3883
E-mail : 6135722@hanmail.net
다음카페 : cafe.daum.net/baby-Gwangju-Jeonnam

사단법인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광주전남 본부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광주광역시 북구 문봉로 77 전남대학교 양지관 문화전문대학원
Tel: 062-530-4061~4063 Fax: 062-530-4069

문화로 꿈을 키우는 리자인 하라

2011학년도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아무도 가지 않은 길, 그러나 세상을 밝혀줄 길 문화전문대학원이 함께 합니다

모집안내		지원지역
모집과정	모집인원	
석사학위 과정	문화경영 및 관평전공	00명
	문화예술이론 및 기획전공	00명
계	30명	

전형일정			
구분	원서접수기간	전형일시	최종합격자발표
석사학위 과정	2010.11.2~11.12	1차 : 2010.11.19	2010.12.21
		2차 : 2010.11.25	

문의

- 행정실: 062) 530-4061~4063
- 자세한 내용은 문화전문대학원 홈페이지(culture.chonnam.ac.kr) 참조